

익산 노후 국가산단 '청년 산단 탈바꿈'

복합시설·스마트 공장으로 최첨단 산단 구축

익산 도심권의 노후 국가산단이 각종 시설 확충과 환경 개선 사업을 통해 스마트한 젊은 산단으로 재탄생된다.

사업이 완료되면 주거와 상업, 물류, 근린생활시설이 모인 복합 산업단지로 재편돼 지역경제 성장 동력은 물론 청년 고용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9일 익산시는 도심권에 조성된 노후 한 국가산업단지에 재생사업과 구조

고도화 사업을 동시에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해 청년친화형 선도 산업단지로 선정돼 2024년까지 약 4300억 원 규모의 재생사업을 본격 추진된다.

노후 건축물을 리모델링해 현대화하고 노후 상하수도 정비, 주차장 등 각종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단지 내 공원, 유희공간에 복합문화시설 등이 조성된다.

또한 도시형생활주택과 공동 직장

어린이집 건립 등을 통해 산업단지의 근로자 정주여건도 대폭 개선된다.

인공지능 로봇 등을 도입한 스마트 공장과 스마트 가로등·주차 시스템 등도 도입돼 청년들을 끌어 모을 수 있는 최첨단 산업단지로 구축된다.

아울러 익산시는 지난 5월 정부의 환경개선펀드사업을 추진할 민간개발사업자로 세진산업을 유치했으며 사업 선정에 따라 세진산업 부지에 4층 규모의 물류시설과 지상 20층 규모의 도시형 생활주택, 근린생활시설 등이 들어선다. 총 사업비는 900억원(국비 170억원, 민자 730억원)을 투입해 올

해 하반기 정부 승인을 받아 내년 하반기 착공, 2022년 준공 예정이다.

이 밖에도 제조업체들이 모여 있는 제2산단이 최근 뿌리산업 특화단지로 선정돼 물류시설 등 기업 간 공동활용시설이나 편의시설을 구축할 경우 국비를 지원받게 돼 근로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현을 시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은 물론 스마트한 산업단지로 재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철저한 산업단지화 할력이 넘치는 곳으로 탈바꿈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인천 기자



9일 익산시는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와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군산시, 짬뽕특화사업 추진

연구용역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

군산시는 전국 최고의 맛집들로 유명한 짬뽕특화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런 가운데 9일 시는 짬뽕특화사업 추진 육성전략 및 브랜드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현재 군산시는 짬뽕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육성전략 및 브랜드명 등 개발의 연구용역을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과 계약하고 용역을 진행하고 있다.

이러한 용역과업 수행 진행사항 보고를 위한 중간보고회가 시 상황실에서 지난달 5일에 개최됐으며 시민 대상으로 호원대학교, 근대역사박물관, 빈혜원, 시청 로비 등에서 짬뽕과 특화거리 브랜드명 선호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군산짬뽕의 브랜드명은 '군산짬뽕'으로 거리 브랜드명으로는 '짬뽕시대'로 선정했다.

브랜드 네이밍과 함께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용역기관)은 그간 사업 추진 용역을 위해 설비·정비, 문화

공간강출, 자원화 산업화로 크게 3가지로 나눠 전략을 세웠다.

설비·정비 전략으로 거리활성화콘텐츠 개발(도로·거리 환경개선 사업)과 문화공간강출전략으로는 관광객유입 콘텐츠 개발(스토리텔링 활용프로그램), 자원화·산업화 전략으로는 지역경제 활성화 콘텐츠이벤트 활용, 짬뽕이카이브구축(데미투어로 드래깅, 맛지도, 홍보 등), 외식업 체환경개선, 짬뽕전문인 역량강화 등의 전략을 제시했다.

7월 말 연구용역 최종 결과를 바탕으로 특화거리 조성 설계와 공사를 진행할 계획으로 거리 조성은 도로·인도, 가로경관 정비, 음식점내(키오스크) 등 편의시설 및 주차장시설, 조명물 설치 등 근대역사문화와 연계해 정비된다.

또한 군산을 짬뽕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관광콘텐츠 개발과 마케팅 전략 등을 세울 계획이다.

또한 입점자에게는 시설개선자금

용자 지원 및 위생서비스 등 개선사업 지원, 특화거리 내 입점 영업소 간관정비, 상수도 사용자 감편지원(조례제정 후), 식재료 공동구매 구축 운영·지원을 하게 된다.

더불어 짬뽕특화거리를 주제로 한 짬뽕페스티벌 개최 및 유명 셰프 초빙 이벤트 진행, 맛 체험 관광맛지도 제작·홍보, 입점자 경영컨설팅 및 친절교육, 블로그·SNS·TV 방송, 홈페이지 활동 등 적극적인 홍보도 할 예정이다.

오숙자 위생행정과장은 "짬뽕특화사업을 통해 죽어있는 상권을 살리고 우리민의 짬뽕을 브랜드화 하여 관광객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콘텐츠 개발과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하였고, "이 사업이 잘 정착되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해 국가예산 7억5천만원을 확보, 총사업비 15억원으로 군산의 짬뽕을 관광자원으로 특화하고 거리조성과 함께 짬뽕페스티벌 개최 등을 위해 근대역사박물관 인근 동령길과 장미길 주변을 특화거리로 선정해 빈혜원을 비롯한 기존업소 3개소 포함 총 12개소의 입점영업자를 확정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군산시,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

군산시는 9일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제276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재난안전담당 등 시 관계 공무원을 비롯해 군산도시가스, 한국전기안전공사 군산지사 협조아래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한국가스공사 전북지역본부,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 등 유관기관과 군산시 안전보안관, 민간에활동, 안전모니터봉사단 등 단체와 함께 안전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또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군산시민들과 관광객들이 자주 이용하는 군산시외버스터미널에서 소방 및 전기 시설 등을 점검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소방서, 올해 상반기 화재 전년 대비 34% 증가

익산소방서(서장 백성기)는 익산시 2019년 상반기 화재통계 분석자료를 발표했다.

익산소방서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에 총 175건의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년도에 발생한 130건보다 45건(34%) 증가한 수치이다. 재산피해액 7억4200만원과 인명피해 1명(사망 1)으로, 전년도 대비 각각 4700만여 증가하고 인명 피해는 2명이 줄어든 것으로 집계되었다.

특히 화재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전체 화재건수 중 95건(54%)로 여전히 높고 다음으로 전기적 요인 25건(14%), 기계적요인 24건(13%) 순으로 발생되었다. 주목할 점은 부주의 화재가 전년도 보다 35건(58%) 증가하였다. 이는 건조한 기후적 요인과 야외에서 화기 취급 부주의에 의한 영향으로 분석되었다.

/익산=장인천 기자

지역사회 공헌 기업 이미지 실현

익산시·농협은행 익산시지부, 그늘막 설치 약정

익산시가 민·관 협력을 통해 주민 편의 증진을 도모한다.

9일 익산시는 NH농협은행 익산시지부와 무더위쉼터 그늘막 설치에 관한 기부채납 약정을 체결했다.

약정에 따라 농협 익산시지부는 해당지역에 그늘막을 설치할 수 있는 20개소를 선정하고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농협 익산시지부는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 이미지 실현을 위해 이번 기부채납을 약정했다.

이종찬 익산시지부장은 "그늘막

을 통해 폭염으로 지친 심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해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현을 시장은 "지난 5월에도 폭염피해 예방을 위해 농협을 무더위쉼터로 개방해주고 이번에는 그늘막 20개를 설치한 후 익산시에 기부채납하게 된다.

"시민들의 이용이 많은 장소에 그늘막을 설치해 폭염 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군산시보건소, 마을공동체 건강누리마을 운영

군산시보건소(소장 정형태)는 경암동 부향하나라 아파트와 삼학동 주공아파트에서 주민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하고 건강생활 환경 기반을 조성하는 건강누리마을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건강누리마을 조성사업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이용지표 빅데이터를 기초로 도시권 건강행태 하위순위의 동지역을 선정, 지역사회 협력

기관(군산의료원 등)과 연계해 찾아가는 건강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주민의 건강지표와 건강요구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소는 방문건강조사를 실시하고 아파트 내에서 건강부스 통합캠페인을 개최해 주민에게 건강누리마을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 이후 마을별 취약한 건강행태를

높이기 위해서 정기적인 혈압·당측정, 요가활동, 정신 및 중독이동상담 등 주민참여 특화집중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건강누리마을은 기존서비스와 함께 치매와 관련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환자와 가족이 더불어 살 수 있는 치매친화적인 지역공동체 치매안심마을을 공동 운영하여 마을 주민의 건강생활 실천에 시너지 효과를 낼 계획"이라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동산사회복지관, 지역주민 전수조사

이달부터 9월까지 동산주공아파트 주민 686세대

익산시 동산사회복지관은 지역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동산주공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686세대로 이달부터 9월까지 3개월에 걸쳐 실시된다.

주요 설문내용은 경제활동 실태 및 욕구, 보건 및 의료기관 이용실태, 사회적 관계의 어려움, 여가생활, 복지관 서비스 욕구 등 총 6개 영역, 50여개 문항으로 구성됐다.

조사를 마친 후 2개월간 분석을 통해 주민들이 받고 있는 복지 서비스와 어떤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 지원의 효율적 이용에 활용될 예정이다.

동산사회복지관은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위치해 있어 주로 이용자 중심

으로 매년 욕구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올해 처음으로 입주자 가구를 직접 방문한 대규모 생활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됐다.

이는 복지사각지대 발굴로 위기가정의 사례관리 개입과 변화하는 주민들의 복지 욕구 파악을 위해 올 초부터 기획했으며 사전준비를 마치고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다.

이현희 동산사회복지관장은 "이번 전수조사로 위기가구 발굴과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복지서비스 개발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앞장서 더 나은 복지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인천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